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경남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Social Interaction Anxiety of Nursing Students

Kyoung-Nam Kim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요약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긴장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타인의 평가가 예상되거나 실제할 때 느끼는 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라고 한다.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B시와 C시에 소재한 4곳의 간호 대학 생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67,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56,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4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beta=.19, p<.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beta=.43,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beta=.34, p<.001$)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들 변수가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8.1%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대학생들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 제공과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re is increasing tension and anxiety about being evaluated by others such as anxiety, which is felt when others' evaluation is expected or actual, and this is called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reduce social interaction anxiet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factors affecting social interaction anxie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our nursing college students in B city and C city.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ocial interaction anxie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ar of negative evaluation ($r=.67, p<.001$), fear of positive evaluation ($r=.56, p<.001$),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r=.44, p<.001$). Factors affecti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erms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w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a=.19, p<.001$),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eta=.43, p<.001$), and fear of positive evaluation ($\beta=.34, p<.001$).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58.1%.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nursing college students need to provide a support system to maintain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o reduce sensitiv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and to accept and positively evaluate their own ability.

Keywords : Evaluati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Social interaction, Anxiety, Nursing students

“이 연구는 2020년도 부산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20교-16)”

*Corresponding Author : Kyoung-Nam Kim(Busan Women's College)

email: fairycc@bwc.ac.kr

Received March 17, 2020

Accepted June 5, 2020

Revised April 9,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이 지켜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보편적인 경험이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긴장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타인의 평가가 예상되거나 실재할 때 느끼는 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라고 한다[1]. 간호대학생들은 학습성과의 달성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과과정 중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에서 동료나 교수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수행평가를 수시로 받게 되고, 비교과 과정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하며 수시로 점검과 평가를 받게 되어 평가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기 쉽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2].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불안은 동기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촉진시키고 수행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나 지속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심리적 고통 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3].

신규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간호사 업무를 시작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행의 시기동안 역할 부담, 업무 과량,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충격을 경험한다[4]. 신규간호사는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병원생활에 적응하는데 정서적, 심리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긴장 및 압박감, 실수에 대한 두려움, 질책과 비난받음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 좌절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주요 상황으로는 인계를 줄 때, 다른 동료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나 프리셉터나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관찰 또는 질문을 받을 때 주로 간호대학생들처럼 수행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신규간호사나 임상경험이 적은 대상자의 불안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간호에 대한 주의집중력을 감소시켜 환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단서를 놓치게 하는 반면[7], 간호사의 불안이 감소되면 그러한 단서들을 더 잘 발견하여 환자간호에 대한 의사결정이 향상된다[8]. 따라서 신규간호사들이 되기 전 간호대학생 때부터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지루하고 어리석어 보이거나 적절한 반응을 못해 무시당할 것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말한다[9]. 사회적 불안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회불안을 낮추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시 느끼는 불안에 대해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경향이 있고[10], 사회불안 장애 환자들의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치료 결과에 대해 중요한 예언 변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11]. 일부 연구들에서 사회적인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불편감을 느끼고 긍정적 경험의 의미를 격하시키는 사회불안 장애 환자들의 특성이 발견되었다[12].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뿐 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또한 두려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작은데도 이를 스트레스로 경험하고 불확실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믿으며 회피하려고 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한다[13].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정도에 대해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가두려움이 시험불안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사연구가 있었는데,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들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시험불안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 그 외 연구에서는 단순히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수행평가나 시험과 관련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 연구[14]나 간호대학생들의 시험불안에 관한 연구[15], 그리고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불안감[16]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중재 전략들을 학부 때부터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감소와 환자간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를 분석한다.
- 2)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4)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와 C시에 소재한 4곳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 크기의 효과 .15, 검정력 95%, 예측인자 5개를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 표본수는 138명으로 나타나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연구방법, 기대효과, 참여 절차, 협조 사항, 기대되는 이익 및 참여에 대한 보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B시와 C시에 소재한 4곳의 간호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2명의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자료수집 후 분석과정에서 불충분한 답변을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총 19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FN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7]가 30문항으로 개발하였던 것을 Leary[18]가 전체 척도 점수와 .50이상의 상관이 있는 문항 12개를 뽑아 단축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BFNE척도를 Lee와 Choi[19]가 번안하고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Lee와 Choi[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Weeks 등[20]이 개발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FP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10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Weeks 등[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단축형(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Short Form : IUS-12)를 사용하였다. Carleton 등[21]이 12문항으로 2요인 구조의 단축형 척도(IUS-12)를 개발하여 타당화 하였다. 국내에서는 Choi[22]가 번안하여 사용한 IUS 도구를 참고하여, 매끄럽지 않은 표현을 일부 수정 보완한 Kim[1]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Carleton 등[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3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타인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이성 혹은 낯선 사람과 어

올리는 것 등에 대한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가 개발한 도구로[23]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기술하는 자기진술문 형식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24]이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고 Kim[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 4)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175명(89.2%), 남학생이 21명(10.8%)이었으며, 연령의 평균은 21.0±2.0세로 20-30대가 193명(98.5%)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이 116명(59.1%)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 경험의 평균은 3.1±2.2개월로 실습경험이 없다가 147명(75.0%)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119명(60.7%)이었으며 이성친구는 있다가 82명(41.9%), 없다가 114명(58.1%)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는 좋다가 125명(63.7%), 보통이다가

Table 1. Comparison of Social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F	p	Scheffe
Gender	Female	175(89.2)	27.6±11.3	0.40	.524	
	Male	21(10.8)	25.9±11.7			
Age(yr) (21.0±2.0)	20-30	193(98.5)	35.1±8.8	1.65	.081	
	31-40	2(1.0)	36.5±7.8			
	41-50	1(0.5)	37.8±6.9			
Grade	1	116(59.1)	27.8±11.9	3.07	.029	
	2	35(17.8)	22.9±9.6			
	3	1(0.7)	41.0±0.0			
	4	44(22.4)	29.7±10.1			
Clinical Practice Period (Month) (3.1±2.2)	none	147(75.0)	29.7±10.2	0.50	.770	
	1-12	43(22.0)	26.5±16.2			
	13-24	2(1.5)	25.0±15.5			
	≥25	2(1.5)	24.0±11.3			
Religion	Christian	43(21.9)	27.4±11.1	0.42	.738	
	Buddhism	25(12.7)	27.9±10.7			
	Catholic	9(4.7)	23.3±10.7			
	None	119(60.7)	27.6±11.6			
Lover	Yes	82(41.9)	26.9±10.9	0.33	.721	
	No	114(58.1)	27.9±11.7			
Human relationship	Good	125(63.7)	24.0±10.2	34.66	<.001	
	SoSo	71(36.3)	33.3±10.8			
Health status	Good ^a	114(58.1)	25.5±11.7	3.94	.021	b>a,c
	SoSo ^b	81(41.3)	30.1±10.4			
	bad ^c	1(0.6)	31.0±0.0			
Nursing Entrance Motivation	Aptitude	72(36.7)	25.8±11.7	2.10	.055	
	Social contribution	8(4.0)	29.3±9.6			
	High school grades	4(2.0)	29.7±11.0			
	Advice of others	27(13.7)	25.5±12.0			
	Employment rate	67(34.1)	32.1±10.6			
	Good nurse image	18(9.5)	24.8±11.0			
Major satisfaction	Very good ^a	24(12.5)	18.8±11.5	6.78	<.001	e,d>a, b,c
	Satisfaction ^b	93(47.4)	27.3±9.5			
	SoSo ^c	67(34.1)	29.0±11.0			
	Dissatisfaction ^d	8(4.0)	39.2±17.6			
	Very unsatisfied ^e	4(2.0)	31.7±11.2			
Academic performance	Good	28(14.2)	27.0±10.9	0.49	.952	
	SoSo	144(73.4)	27.6±11.1			
	bad	24(12.4)	27.0±11.3			

71명(36.3%)이었으며, 건강상태는 좋다가 114명(58.1%), 보통이다가 81명(36.3%)이었다. 간호학 입학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 라는 응답이 72명(36.7%)로 가장 많았고 높은 취업률은 67명(34.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93명(47.4%), 보통이다가 67명(34.1%)이었으며, 학업성적은 144명(73.4%)의 학생이 중간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의 불안의 차이는 대인관계($t=34.66, p<.001$), 건강상태($F=3.94, p=.021$), 전공만족도($F=6.7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대상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21.9 ± 6.9 점이었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20.0 ± 10.2 점이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대한 평균은 30.6 ± 5.1 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평균은 27.4 ± 11.3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of subjects (N=196)

Variables	Min	Max	Mean±S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0	48	21.9±6.9
Fear of Positive Evaluation	0	50	20.0±10.2
Intolerance of Uncertainty	12	48	30.6±5.1
Social Interaction Anxiety	0	63	27.4±11.3

3.3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평가의 두려움($r=.3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49,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31,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67,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56,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4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of subjects (N=196)

Variables	FNE	FPE	IU	SIA
	r(p)			
FNE	1			
FPE	.38(<.001)	1		
IU	.49(<.001)	.31(<.001)	1	
SIA	.67(<.001)	.56(<.001)	.44(<.001)	1

FN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P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IU: Intolerance of Uncertainty, SA: Social Interaction Anxiety

3.4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지수를 이용하였으며 Durbin-Watson지수 1.96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VIF(분산팽창요인)지수를 이용하였고, VIF지수는 1.07-1.42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beta=.19, p<.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beta=.43,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beta=.34, p<.001$)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들 변수가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8.1%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Social Interaction Anxiety (N=196)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6.83	3.38		-2.02	.045	
Human relationship	4.45	1.14	.19	3.88	<.001	1.07
Fear of Negative Evaluation	0.71	0.93	.43	7.64	<.001	1.42
Fear of Positive Evaluation	0.37	.05	.34	6.50	<.001	1.21
Intolerance of Uncertainty	0.17	.12	.08	1.46	.145	1.31

adjusted R²=.581, F=64.07(p<.001), Durbin-Watson=1.9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는 대인관계, 건강상태, 전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한 차이는 경제상태, 간호학 전공만족도, 학업스트레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2]. 본 연구의 결과와 공통적으로 밝혀진 결과는 간호학 전공만족도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학생들보다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높고, 전공만족도는 불만족인 학생들이 만족인 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학생들을 비교하여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정도를 검증한 결과들이 대부분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불안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고[1][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각 변인간의 영향을 확인하여,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25]. 따라서 추후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와 전공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21.9±6.9점이었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20.0±10.2점으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두려움에 관해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38.17점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23.96점으로 나타나[2]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지만 점수의 차이가 본 연

구의 결과보다 차이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간호사로서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험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임상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부담과 부적응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26.9±8.1점이었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17.1±10.5점이었다 [1]. 간호 대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 대학생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대한 평균은 30.6±5.1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평균은 27.4±11.3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대한 평균은 30.3±5.5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평균은 57.6±21.9점으로 나타났다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정도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평균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우나 간호 대학생들은 학부 때 여러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이후 간호사가 되어 환자와 보호자 및 많은 의료진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므로 다른 학과 대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훈련이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일반 대학생들과 달리 다소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회불안을 타인의 관찰 하에 수행할 때 느끼는 불안과 상호작용을 할 때 느끼는 불안으로 구분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g 등의 연구에서[2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인지적 정서조절과의 상관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사용이 많았으며 신규간호사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현장적응력은 낮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현장적응은 높아졌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현장적응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불안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시험불안과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2], 대학생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27],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28]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들 변수가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8.1%로 나타났다. Kim[1]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평가의 내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기상에 맞지 않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89.2%가 여학생인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부족한 학생들은 원하는 직업선택 및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기도 하고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환경적 제약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2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추후 반복 연구를 시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시도하여 대인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변수가 영향요인임을 도출하였고, 그러한 변수들이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5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영향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 간호학적 의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은 외부의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민감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 교육시 간호교육 현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낮추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잘 적응하는 간호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지 제공과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8.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 제공과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중재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S-H. Kim, "The relationship of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pp.1-66, 2010.
- [2] O-H. Cho, K-H. Hwang, J-M. Lim, "Influence of fear of evaluation, test anxiety, and social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7, pp.56-66,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7.056>
- [3] M. A. Antony, R. P. Swinson, "The shyness and social anxiety workbook: Proven techniques for overcoming your fears",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s, pp.1-272, 2000.
- [4] K. M. Sin, J. O. Kwon, E. 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new graduate nurses reality shock",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Vol.20, No.3, pp.292-301, 2014.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4.20.3.292>
- [5] G. L. Kim, H. J. Lee, Y. S. Cho, M. H. Kim, "The experience of turnover decision making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4, No.1, pp.23-33, 2013.
- [6] G. Tolbert, "Performance anxiety in new graduate nurses", Dimensions Critical Care Nursing, Vol.31, No.5, pp.295-300, 2012. DOI: <https://doi.org/10.1097/DCC.0b013e3182619b4c>
- [7] P. Benner, C. Tanner, C. Chesla, "From beginner to expert: Gaining a differentiated clinical world in critical care nursing", Advanced in Nursing Science, Vol.14, no.3, pp.13-28, 1992. DOI: <https://doi.org/10.1097/00012272-199203000-00005>
- [8] F. J. Papa, J. H. Shores, S. Meyer, "Effects of pattern matching, pattern discrimination, and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expertise", Academic

- Medicine, Vol.65(9 Suppl), S21-22, 1990.
- [9] Y-J. Kim, N-W. Chung, "The mediating effect of 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1, No.2, pp.395-409, 2016.
- [10] R. G. Heimberg, D. A. Hope, R. M. Rapee, M. A. Brunch, "The validity of the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and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with social phobic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 26, pp.407-410, 1988.
- [11] C. Pozo, C. Carver, A. R. Wellens, M. Scheier, "Social anxiety and social perception : Construing other's reaction to the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7, pp.355-362, 1991.
- [12] R. G. Heimberg, R. E. Becker,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Basic mechanism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pp. 1-334, 2002.
- [13] K. Buhr, M. J. Dugas,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Vol.40, pp.931-945, 2002.
- [14] E. Hong, B. R. Kim, "The effects of guided imagery on stress, state anxiety, test anxiety and core basic nursing skill performance scor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1, pp.16-24, 2020. DOI: <https://doi.org/10.5977/jikasne.2020.26.1.16>
- [15] S-H. Kim, M-J. Baek,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of test anxiety and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 14, No.3, pp.327-346, 2019. DOI: <https://dx.doi.org/10.21097/ksw.2019.08.14.3.327>
- [16] E-Y. Yeom, "The influence of experience of nurses, incivility and social anxiety on emotional labor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4, pp.293-302,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4.293>
- [17] D. Watson, R. Friend,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3, pp.448-457, 1969.
- [18] M. R. Leary,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9, pp.371-375, 1983.
- [19] J. Y. Lee, C. H. Choi,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s of social phobia scales (K-SAD, K-FN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6, No.2, pp.251-264, 1997.
- [20] J. W. Weeks, R. G. Heimberg, T. L. Rodebaugh,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 Assessing a proposed cognitive componen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22, pp.44-55, 2007.
- [21] R. N. Carleton, M. A. Norton, G. J. G. Asmundson, "Fearing the unknown : A short version of the intolerance if uncertainty sca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21, pp.105-117, 2007.
- [22] H. K. Choi, "The dysfunctional effects of chronic worry and controllable-uncontrollable threats on problem-solving",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2, No.2, pp. 287-302, 1997.
- [23] R. P. Mattick, J. C. Clark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Vol.36, pp.455-470, 1998.
- [24] H. S. Kim, "Memory biasin subtypes of social phob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pp.1-85, 2010.
- [25] H-S. Kim, "Mediated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9, pp.107-126, 2016.
- [26] K-N. Jeong, H-J. Lee, H-J. Kwon, "The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on field adaptation of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0, pp.6895-6904,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0.6895>
- [27] S-J. Kim, Y-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internalized sham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1, pp.199-216, 2015.
- [28] M-J. Lim, K-L. Yu, "The influence of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and self-concealment on college student's social anxiety: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2, No.1, pp.365-389, 2020. DOI: <https://doi.org/10.23844/kjcp.2020.02.32.1.365>
- [29] M. K. Lee, H. Seong, E. Kim, S. Jee, S. Ahn, "The effect of intolerance to uncertainty on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volition and work hop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9, No.3, pp.141-159, 2016.

김 경 남(Kyoung-Nam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기초간호학, 중환자간호학, 심폐소생술